

제한 유학 경험 중국인의 미래거취에 영향을 주는 요인분석

왕치엔⁷⁸

수원대학교 국제대학

Since Korea and China have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in early 1990s,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in politics and economics had achieved. Two countries will provide big market for each other as before. The relationship will be closer between two countries. And the foreign students that know well about language and culture of two countries will act as a bridge. Especially, THAAD problem made the tension between two countries severely recently. It is important that government of two countries speak to each other to achieve rapprochement. And the role of people of two countries, especially foreign students are important too.

As the quantity of foreign students increases, more studies about foreign students appeared. The studies are mainly about Korean language, studies in college (graduate school), the satisfaction of college (graduate school) life, and the pressure of studying oversea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the studies about foreign students' life after they graduated from university. The study about future whereabouts of the foreign students that do not go back motherland but settle down in Korea is probably meaningful.

The study will focus on whereabouts of Chinese students that have high level education in Korea to narrow scop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factors that affect Chinese students make decision over their future after they stay at Korea for several years.

Keywords: Korean foreign students, Chinese students, factors , make decision

I. 서론

아시다시피 한국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수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의 외국인 수용 형태는 국제결혼과 이주노동이 주를 이루었으며, 외국인 유학생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였다. 1990년대 초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 양국의 정치,

⁷⁸ 현 수원대학교 국제대학 조교수.

경제적 관계가 본격화 되었다. 과거에도 그랬듯이 한·중 양국은 앞으로도 높은 기술력으로 서로에게 커다란 시장을 제공함으로써 그 긴밀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양국 사이에서 이러한 긴밀한 관계의 실제적인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집단은 다른 아닌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유학생이다. 이들의 역할은 한중간의 정치경제적 역학구도가 확대될수록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양국은 이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한·중 관계가 긴장 상태에 접어들었는데, 이 시기에 양국 우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중 정부 간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유학생들을 비롯한 민간 교류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2000년 중반 이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 특히 중국인 학생들이 학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붓물처럼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한국은 자국 내 외국인들이 증가하면서 변화하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들을 위한 취업제도 및 여러 가지 관리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더불어 이주 외국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도 확산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현재 학생의 신분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하거나, 혹은 이주민 집단의 연구도 이주노동자, 국제결혼이주여성 위주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최근 한국사회에 외국인 유학생 증가와 함께 늘어난 외국인 유학생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학업, 학교생활 적응 및 적응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주요 관심사이다. 즉, 외국인 유학생을 한국에서 학업만을 목적으로 해 단기적으로 머물다가 떠나는 사람들로 보고 진행한 연구들이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는 재 한국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가 다수를 차지한다. 외국인 유학생 규모를 살펴보면, 실제로 절반 이상을 중국인 유학생이 차지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두 나라 간 경제, 문화교류가 많아지면서 한국에 공부하러 온 중국학생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90년대에 한국에 들어오는 중국유학생은 중국정부가 보내는 국비유학생들이다. 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귀국하여 정부가 배정해주는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2000년대 중반부터 한·중 관계가 좋아질수록 양국교류도 점차 확대되었고, 중국 개혁개방 이후 국민 소득이 늘어나면서 자녀를 자비 유학으로 보내는 가정도 증가했다. 이에 2000년 들어와서는 한국으로 유학 온 중국학생들 중에도 자비유학생이 급증하기 시작했다.

2018년 12월까지 한국에 체류 중인 유학생은 160,671명이고 그 중 중국유학생은 69,875명(43%)이다. 중국학생들이 한국을 유학지로 선호하는 이유로 다음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내 대학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는 점이다. 중국의 공립대학 입학 정원은 전체 고교 졸업생의 30% 정도 밖에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중국에서 험난한 입시과정을 치르는 대신 한국에서 비교적 손쉽게 대학에 가는 길을 택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이다. 일부 중국대학 졸업생들은 중국에서의 학력이 불만족스러워 한국에 와서 다시 진학하기도 한다. 게다가 자녀를 하나만 둔 중국 학부모들은 경제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자녀를 한국에 유학 보내려고 한다. 경제성장 덕분이겠지만 중국 학부모의 교육열은 한국인 교육열에 못지않다. 둘째,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의 이미지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게 되었다는 점이다. 중국은 한류의 시발지로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 대중문화 애호층이 폭넓게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다. 자신이 동경하는 배우나 가수를 만나기 위해, 또는 그들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람도 적지 않은 것이다. 셋째는 경제적 여건을 비롯한 기타 사정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지 못하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중국의 우수한 학생들은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를 더 선호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도 한국보다는 아직 일본이 더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여건 때문에 그곳에 갈 수 없는 학생들이 한국을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또, 서구권 국가들보다 한국비자를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한국으로의 유학길을 택하기도 한다.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보통은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집단이 아닌 단기 거주민으로, ‘곧 떠날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최근 한국이 외국인 유학생을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있긴 하지만 이런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주로 그들의 학교생활에 중점을 두고 있을 뿐, 그들 생활 전반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0년 중반 이후 자비유학생 중에는 한국에 들어와 지금까지 한국에서 지내며 정착한 유학생들도 있는데 이들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들이 한국유학을 마친 후 한국에서 거주하는 사례도 증가한 만큼, 졸업 후 한국 사회와 문화에 적응하는 모습, 그리고 미래 거취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유학생생활을 끝내고 한국사회에 남은 유학생들의 삶에 관한 연구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문화다원성을 강조하는 현대 한국사회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 후반 들어 한국에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나면서, 한국 국내 외국인 유학생을 다루는 연구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국인 유학생 수가 빠르게 증가하였다. 국제 유학생 논의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박은경과 Kim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박은경은 기존의 연구는 이주노동자나 국제결혼여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반해, 다수집단을 구성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며, 이들을 다루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제한 중국유학생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Kim(2012)은 ‘유학(studying abroad) 혹은 초국가적 교육(transnational education)은 고등교육연구에서 부상하고 있는 연구영역'이라 보고 이 분야의 중요성을 지적하였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논의의 범위를 좁혀 한국 내 고학력 중국인 유학생들의 졸업 후 거취를 질적 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글은 한국 거주 유학 경험 중국인이 유학생생활을 끝나고 한국사회에 몇 년을 정착하다가 미래거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발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유학생들이 증가하면서 학업 이후 이들의 방향도 점차 다양해졌다. 2014년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생들의 졸업 후 거취는 한국체류가 46.7%, 출국이 53.3%의 비율로 출국비율이 좀 더 높긴 했지만, 유학생의 약 절반에 가까운 수는 한국에 잔류하는 길을 택했다.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았으므로 당연히 잔류를 선택한 학생 수에서도 중국인 학생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이들에 대한 연구도 확산되었는데, 중국인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한국어, 대학(원) 학업, 대학(원)생활 만족, 그리고 유학생생활 스트레스 등 유학생생활을 다루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하지만, 늘어나고 있는 학업 이후 한국 체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연구는 아직까지 찾기 어려운 실정으로, 졸업 후 모국과 한국, 선택의 기로에서 한국에 정착하게 된 유학생들의 미래 거취 논의는 한국의 이주민 연구에서 의미 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이 글은 중국 Wechat(SNS) 이용하여 재한 중국 직장인 chatting room 에서 연구대상자 5 명을 뽑고 1:1 심층면접을 실시했다. 이는 한국에 정착한 중국유학생들이 처해있는 환경과 그 상황에서 자신과 그들의 주변세계에 대한 경험, 개념, 지각, 이해 등에 내재해 있는 의미와 경험을 이해하기에 유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대상자들은 한국 서울과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의 대학교에서 졸업하여 한국에 10~11 년 거주하며,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현재 직장인으로 한국사회에 정착한 사람들이다. 필자는 이 chatting room 에서 참여관찰을 통하여 이 글에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였다. 이 글은 귀납적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선행연구에서 나온 개념이나 가설을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 아니라, 면접자료 자체에서 주제별 공통점과 결론을 도출해내고자 하였다. 이 chatting room 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귀국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귀국 못 하는 사정이 있었다. 5 명 연구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사회 인구학적 특성은 <표 1>에서 별도로 정리하였다. 아래 5 명 연구대상자의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해 이들의 미래 거취 결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살펴보겠다.

<표 1> 연구 참가자의 일반적 특징

번호	이름/ 성별	나이	거주지	학력	현재직업	재한기간	혼인	자녀
1	[가]/여	35	서울	박사	대학교강사	10년 9개월	기혼	있음
2	[나]/남	35	경기도	석사	회사원	11년 2개월	기혼	있음
3	[다]/남	35	서울	석사	회사원	11년 1개월	기혼	있음
4	[라]/여	33	서울	석사	사업	10년 2개월	기혼	있음
5	[마]/남	34	경기도	박사	대학교직원	11년 3개월	기혼	있음

*연구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참가자들에 관한 내용은 2018년 8월을 기준으로 한다.

면접대상은 30세 초반 청년층이다. 연구자 본인도 재한 유학생으로서 이들과 유사한 사회적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고학력 직장인 친구로부터 면접을 시작해 눈덩이표집(snow-bowling)에 의존하여 여러 경로를 통해 연구를 확산해 나갔다. ‘조선족’이라고 불리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한국문화에 대한 관점 및 배경 등이 다른 중국인들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구대상자들을 확대해 가는 과정에서도 이들은 제외시켰다. 지인들의 소개와 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그런 점에서 본 연구는 연구자의 위치(subjective position)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다보니 조사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연구대상자들의 의견에 동조되기도 하고 감정이입이 생기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비정기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는 주로 연구대상자의 집이나 조용한 카페에서 이루어졌고, 만남은 최소 2~3시간 정도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후 보충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여러 번 만난 연구대상자도 있다. 또는 통화로 계속 연락해서 보충자료를 받기도 했다. 가능한 주말에는 같이 활동하면서 본 연구에 필요한 이야기를 들었다. 면접은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연구대상자의 집안상황, 성장환경부터 시작해 유학시절에 대한 기억을 이끌어냈다. 연구자가 미리 질문을 정하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답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인식과 한국생활 적응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를 풀어내고자 했다. 언어적 제한이 없도록 연구 참가자들과 중국어로 인터뷰를 했으며 이야기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인터뷰 진행 전 녹음기 사용에 대해 설명하고, 연구대상의 허락 하에 인터뷰를 진행했다. 지인들의 소개를 받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인터뷰는 녹음, 기록되었지만, 나머지 연구대상자들의 경우 인터뷰 녹음을 꺼려하기도 해서 연구자가 구술하는 대로 받아 적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한 일부 면접대상자의 경우는 아예 녹음하거나 필기하지 않고 중요한 대화 내용을 기억하여 자료에 활용했다. 이러한 문제는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상 민족 혹은 종족 정체성과 같은 민감한 주제를 공적인 장에서 언급하기 싫어하는 중국인의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연구대상자들은 2006년 3월~2009년 3월 사이에 한국에 들어왔다. 그 시기는 바로 한국이 ‘스터디 코리아 프로젝트(Study Korea project)’를 실행한 이후 중국유학생이 한국으로 들어온 첫 번째 시기에 해당한다. 그러나 한국은 외국인 유학생을 보통은 한국사회에 정착해서 거주하는 집단이 아닌 단기 거주민으로, ‘곧 떠날 이방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실증 조사를 통해 한국유학생활을 끝나고 한국에 남아있어 한국에 정착하는 중국인도 있는 것이다. 이 사람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은 이유, 그리고 이들의 미래거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기 통해 한국 외국인집단 연구에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의 인터뷰 내용을 분석하여 아래 4 가지 요소가 이들의 미래거취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본다.

II. 자아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회자본

퍼트남(Putnam)에 따르면 사회자본(social capital)은 사회구성원 상호간의 이익을 위해 조정 및 협동을 촉진하는 규범, 신뢰, 네트워크 등을 가리킨다. 사회자본은 생산을 가능케 하는 물리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 등으로 인간관계 내에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자본은 사회구성원들에게 공유된 행동 규범 및 공통적인 문화 정체성을 부여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사회자본은 정보 공유의 역할을 담당하며 공식·비공식 제도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개개인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게 하는 조정 역할 역시 담당하며, 집단적

의사결정을 통해 외부효과를 창출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이 글의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에 정착하는 동안 개인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유학생생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며, 일부는 개인 창업도 이루어냈다. 한국생활 적응 과정은 이러한 사회자본 이용과 의뢰의 정도를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졸업하고 한국에서 4, 5년 정도 일했어요. 물론 우리 아빠는 제가 한국에 있는 것에 찬성해요. 그리고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을 알게 되었죠. 한국에서 회사 다니는 중국고향 친구들과도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인터넷 채팅방에서 자주 뒤에 대해 토론하고 주말에 모임도 있고요. 제가 계속 한국에 있을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심적으로 서로 배려하고 지지해주는 사람들이죠. 사이가 괜찮은 한국친구도 있는데 자주 못 만나요. 근데 제가 한국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한국친구들이 많이 도와줘요.’ ([가])

인적 자본을 볼 때 연구대상자 [가]는 한국에 있는 친구들 때문에 한국생활을 더 수월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같은 한국유학, 한국생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해주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목표를 갖고 서로 도우며 지내는 것은 타국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같은 어려움을 경험한 이들의 관계를 강화시킬 수 있다. 퍼트남(Putnam)은 가족을 비롯한 친족 인적교류와 친족 외 지인교류, 기타 교제활동 시간을 포함하여 대면커뮤니케이션 기반의 인적교류 항목을 설정한다. 가족자원을 사회자본의 개념요소로 구체화하는 근거는 자본 생성의 가치에서 찾을 수 있다. 인적 교류는 일반적으로 사회자본 개념요소 중 네트워크에 속한다. 사회자본 측정지표로서 가족지원 형태의 자원은 협력관계 네트워크 등의 사회자본 요소를 분류되어왔다. 연구대상자 [가]는 현재 한국에 있는 인적자원이 기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을 쉽게 떠나지 못 한다고 본다. [가]는 자신이 10년 만에 쌓이는 인맥관계를 기대고 이런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가]에게 이런 사회자본은 경제적인 면보다 정신적인 힘을 주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전 연구들에 제한(在韓) 중국인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때문에 한국에 남아 있는 관점도 적당하지 않다고 본다.

그리고 한국에 [가]자신 가지고 있는 사회자본이 외에 [가]가 한국에서 학업을 끝내고 남아 있는 원인 중 가장 큰 것은 그 부모인 것으로 보인다. [가]의 부모는 자식이 귀국하는 것보다 외국에서 정착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가 귀국해도 취직하는 데 있어 부모, 친구들의 도움을 기대하긴 어렵다. 그래서 [가]도 귀국해서 일자리를 구하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했다. 현재까지 [가]는 한국에 거주한 지 10년 9개월이 되었다. 한국에서 쌓은 인적자원이 [가]에게는 중요하다. [가]가 이야기했듯이, 한국에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중국인 지인과 친구가 있고, 직장이나 한국생활에 문제가 생길 때 도움을 받을 한국인 친구도 있다. 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는 원활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인적 네트워크가 [가]에게는 중요한 사회자본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요인으로 인해 [가]가 귀국 마음을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10년간 중국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어나가던 시기에 중국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현재 중국의 경제 상황, 취업상황, 생활모습 등 여러 분야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 보인다. 면담을 하면서 [가]가 중국을 묘사할 때 계속해서 "변했다", "발전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모국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배울 시간이 필요해진 것이다. 그리고 귀국 후 모국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것이 [가]가 현재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였다. 문화 재적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귀국을 선택하기 힘든 것이다.

‘지금 하는 사업은 한국을 떠나면 못 해요. 한국 물건을 중국시장으로 수출하는 거니까 한국에 있어야 한국공장 사장, 도매업 사장 등 계속해서 대화할 수 있고, 또 협상, 계약 등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야 해요. 제가 아는 인맥이 다 한국에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사업을 하려면 지금은 한국을 떠날 수 없죠. 돈을 벌 수 있도록 여기서 사업을 할 생각이예요. 한 번 도전해 보는 거죠.’([라])

연구대상자 [라]역시 출산 후 자녀 양육문제로 회사를 그만두고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다. [라]는 주로 자녀 양육, 집안일을 하는 주부여서 on-line 사업을 재미로 시작했지만 예상외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중국 젊은 여성들 대상으로 한국화장품을 판매한다. 최근에 한류 영향을 받아 한국제품을 사용해 보고 싶어하는 중국 고객들이 많아졌다. 중국고객들은 한국제품을 사용하면서 괜찮은 품질과 저렴한 가격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관심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그에 발맞추어 최근 이 사업을 시작한 중국인들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국유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보다 대행구매가 더 편하게 돈을 벌 수 있어 선호하고 있다. [라]는 가정, 자녀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거취를 결정을 하려고 한다. 남편의 발전을 중요시 여겨 남편을 따라서 한국에 장기 정착을 해도 되고 귀국을 해도 상관없다고 했다. 그래도 자신 사업을 생각하면 당분간 한국에 있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

상당수의 재한 중국인들이 한국에 있는 이점을 살려 한국제품을 중국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 번창과 함께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한 채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III. 중국문화 재적응에 대한 두려움

재 한국 유학생 출신 중국인들은 한국문화 경험을 쌓은 상태로, 자신의 나라로 다시 돌아가면 본국생활에 대한 적응 문제와 새롭게 대면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타국으로의 이주경험은 국가 간, 지역 간 문화 소통의 문제를 새롭게 제기한다. 이 같은 문화 접촉과 소통은 모국을 떠나 외국에 도착했을 때뿐 아니라 타국 생활을 마치고 모국으로 돌아올 때도 마찬가지로의 문제를 야기한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던 자국 문화에 대한 재적응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이 한국에 정착해 있던 10년 간 중국 국내의 변화 속도는 실로 놀랄 만큼 빨랐으며,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방식도 달라졌다. 연구대상자들

역시 귀국하면 문화 재적응을 경험하게 될 것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중국문화와 중국사회, 심지어 오랜 기간 직접 만나지 못했던 중국에 있는 친구들까지도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다.

‘작년에 집에 들어가는데 길거리에서 택시를 못 잡아 짜증이 났어요. 친구한테 연락해서 불만을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나보고 바보라고 시골에서 나왔냐면서 절 비웃었어요. SNS 로 DIDI Taxi 에 미리 연락하면 딱 그 시간에 고객 앞에 온다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택시를 잡을 필요 없어요. 결제도 핸드폰으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중국이 진짜 많이 발전했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못 따라가면 어떡하나 걱정했죠.’ ([나])

연구대상자 [나]는 고향의 변화가 신기하기도 하고 낯설었다고 한다. 11 년 간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 발전에 기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속도를 따라가지 못 할까 봐 걱정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중국이 자신의 모국이 아니라 먼 곳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결국 이들은 ‘모국문화-한국문화’를 거쳐 다시 ‘모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을 지나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적응 과정이 모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리 쉽지 않으며, 오히려 모국에 대한 부적응 현상을 겪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모국 문화의 변화에 이들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중국의 변화가 계속 이어질수록 이들의 귀국 선택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설날 때 우리 중학교 동창들이 모였는데, 너무 어색했어요. 친구들이 하는 얘기도 잘 모르겠고, 대화하기 어려웠어요. 예전에는 친했던 친구들인데, 이젠 같이 있어도 그냥 ‘요즘 어때?’ 하고 질문하고 장난만 치다가 끝나요. 공통 화제를 찾기 힘들어요. 그리니까 점점 국내에서는 친구 만나는 것보다 집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시간이 더 편해지고 있어요.’ ([가])

문화는 한 개인의 행위와 인식의 기준이며, 사회적으로 공유한 가치 기준에 의해 공통되는 일종의 판단 기준이 된다. 즉, 문화는 행위와 의식을 규정하는 보편적 가치기준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가 상이하면 가치판단의 기준이 달라지며, 의미부여나 해석의 체계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한국에 10 년이나 있었던 이들이 중국에 들어가서 친구들 사이에 아무렇지 않게 바로 섞여 들어가기에는 사고와 행동에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화적 배경이 서로 달라졌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충돌이나 갈등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리고 중국 사회 환경의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힘든 점과 함께 서먹해진 인간관계로 친구와 인맥이 부족해졌다는 점 역시 큰 걱정거리가 된다.

‘10 년 전에 한국은 우리나라보다 많이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의 발전 속도가 훨씬 빨라서 지금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새롭다고 느껴요. 도시 시설도 좋아지고 서비스업도 많이

발전했어요. 중국에 있는 친구들의 생활방식, 사고방식 등도 많이 개방적이고, 현대적으로 바뀌어서, 부럽기도 해요.’ ([바])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들은 걱정과 함께 불안을 느낀다.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 들어왔을 때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10년 전에 한국으로의 유학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 또한 달라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국에 돌아가 다시 배우고 적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귀국할 경우 중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기 힘들 수 있다. 익숙한 모국이 아니라 낯선 생활환경에 던져지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쉽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에도 모국의 환경과 화젯거리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그들은 주류집단에 편입되지 못한 채 곁에서만 맴돌게 될 수도 있다.

중국의 발전에 대해 이들은 걱정과 함께 불안을 느낀다. 이들이 한국으로 유학 온 이유 중 하나가 한국이 중국보다 발전된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더 빨리 발전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담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계속 한국에 있으면 중국에 들어왔을 때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앞서게 된다. 11년 전에 한국으로의 유학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자랑거리가 되지 못한다. 중국인들이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 또한 달라진 것이다. 결국 이들은 중국에 돌아가 다시 배우고 적응하는 새로운 출발선에 설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구대상자들은 귀국할 경우 중국 사회에서 소속감을 가지기 힘들 수 있다. 익숙한 모국이 아니라 낯선 생활환경에 던져지는 것이다. 친구들과의 대화도 쉽지 않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기에도 모국의 환경과 화젯거리에 대해 정통하지 못한 그들은 주류집단에 편입되지 못한 채 곁에서만 맴돌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이 귀국 후 중국사회의 발전, 변화, 새로운 문화를 접하면서 위화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고 이에 따르는 신체적, 정신적 불편을 경험할 때 이를 문화충격(culture shock)이라고 부른다. 베넷(Bennett)은 문화충격의 의미를 확대해 과도기적 충격(transition shock)의 한 부분으로 간주하는데 그는 새롭고 변화된 환경과 효율적으로 상호작용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았다. 문화 충격과 과도기적 충격의 두 개념은 일정 기간 해외 체류를 마치고 귀국하면서 겪는 감성적, 생리적 어려움을 의미하는 재입국(re-entry)의 충격까지 포함한다.

중국의 급속한 변화는 귀국해야 하는 이유인 동시에 귀국을 미루는 원인이 되고 있다. 모국이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이 속도에 뒤처지지 않고 발맞추어 가고자 적극적으로 변화에 적응하고 자신을 발전시키겠다는 마음으로 귀국을 선택할 수도, 반대로 이미 적응이 어려워진 상태니 새로운 출발보다는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장과 가정을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귀국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삶에 익숙하다 하더라도 주류사회에 속하기는 어려워 영원히 정착할 수 있다는 확인은 들지 않는다.

반면에 중국인이지만 자리를 오래 비워 중국사회에 속해 있다는 느낌은 약하다. 이렇게 계속되는 이중적인 감정 속에서 이들이 온전히 한쪽을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결국 이들의 생활은 한국과 중국을 오가면서 이루어지고, 경계인으로서 양쪽 사회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역할을 당분간 수행할 것으로 여겨진다.

IV. 본국 환경오염 및 위생에 대한 태도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체제로 신속히 전환하였고, 이 과정에서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누리고 있지만 급속한 도시화와 공업화의 진행으로 환경오염과 생태파괴가 큰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현재 중국 환경오염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미세먼지가 심해지면서 공기의 질이 떨어져 호흡기질환에 걸리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많은 중국 국민들이 가능하면 외국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환경을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특히 돈이 없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 역시 연구대상자가 귀국결정을 내리기 힘들어 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산동 서북지역에 공장이 많아서 환경오염이 심한 편이에요. 제 고향은 광물자원이 풍부해서 유명하지만 화학공장도 많이 있어요. 이런 공장들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사람 몸에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 문제도 갈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봄, 가을에 바람이 불 때는 꼭 마스크를 쓰고 다녀요. 고향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 부자들은 다 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있는데, 저도 다시 고향에 돌아가기 싫죠. 한국 환경이 비교적 좋은 거죠. 아이도 있으니까 한국에서 키우는 게 더 안심이에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도 제가 귀국하고 일자리를 찾는 것에 대해 반대하세요. 특히 우리 아빠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나 고향에 다시 돌아가서 사는 거라고 해요. 고향이 아주 작은 도시니까 돌아가서 발전을 이루긴 힘들죠. (다)'

연구대상자 [다]는 중국의 환경문제를 귀국하지 않는 이유로 꼽았다. [다]의 고향은 산둥성 서부에 있는 내륙도시이고 규모도 작고, 인구도 적은 편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큰 도시에 있었던 공장들이 주변의 작은 도시로 옮겨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큰 도시를 현대화적, 발전적 모습으로 꾸미기 위해 옛날 공장들을 없애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작은 도시에 공장들이 모이면 그 지역의 환경은 계속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기오염뿐만 아니라 많은 폐기물들이 쏟아져 나와 강과 토양오염도 심한 편이다. 특히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을 피하고 싶어한다. [다]는 한국에서 거주하며 익숙해진 탓에 중국에 다시 들어가 중국 환경을 받아들이기는 힘들다고 했다.

위 3 가지 이유는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을 떠나기 힘든 요인으로 본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에서 졸업해도 귀국 안 하는 위의 3 가지 이유가 연관성이 있다고 본다.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에 있는 10년 동안 한국현지에서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 등 사회자본을 만드는 동시에

본국의 사회자본을 잃는 것이다. 이점은 이들이 한국에 떠나지 않는 이유가 되고 또는, 떠나지 못 한 이유도 되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요소가 나타난다. 본국에 없는 10 년간에 모국발전이 빠르기 때문에 자신이 따라가기 힘들어서 문화재적응이 필요하다. 첫 번째, 두 번째의 요인분석을 통해 연구대상자들은 이미 한국생활을 적응한다는 것을 보인다. 한국자연환경, 시설, 서비스 등도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시 본국을 볼 때 불만이나 불안, 부적응이 생긴다. 한 마디로 연구대상자들은 한국생활을 이미 적응한 상태니까 한국을 쉽게 떠나지 못 한다.

그러나 이들의 미래거취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하나 더 있다. 이 요소는 이들의 미래거취결정에 절대적인 요소로 볼 수 있다. 이 바로 중국에 거주하는 가족 요소이다.

V. 중국에 거주 중인 가족

제한 중국인들이 미래 거취에 대해 구상할 때,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는 가족, 특히 중국에 살고 있는 부모 봉양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계획출산정책은 1956 년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중국국무원은 1971 년 처음으로 국민경제발전계획에 인구통제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문화대혁명 등 큰 사회변화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1979 년경에 제도로서 확립된다. 중국정부는 1982 년 국가정책으로 계획출산을 실시하고 12 월에 중국 헌법에 명시하였다. 그리고 2013 년 이 인구제한 정책은 완화되어, 규정상 부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외동자녀라면 부부는 둘째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29~36 세로 1981~1988 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다. 당시는 정부에서 계획출산정책을 실시하던 시기로 대부분 가정은 자녀가 한 명뿐이었다. 특히 도시에 거주하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경우 둘째를 낳으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시기 도시의 일반적인 가정은 한 명의 자녀가 대부분으로,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계획출산 정책 실시 후 외동 자녀로 성장한 첫 세대이다.

‘부모님은 손자를 보러 한국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새벽에 엄마가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셨어요. 모시고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다 받았는데 급성 담낭염이라고 했어요. 바로 입원해야 하는데 부모님이 단기 여행비자로 들어오셔서 보험도 없고 비용이 많이 나올 수도 있다고 했죠. 결국에는 부모님 두 분이서 중국에 들어가셔서 치료 받으시라고 하고, 저는 같이 못 갔죠. 아이가 있고 일도 있으니까, 걱정 많이 했죠. 외동딸이라서, 부모님이 아프신데 옆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어요.’ ([가])

연구대상자 [가]의 부모는 단기여행 비자를 받아 한국에 들어온다. 한국에 한 번 오면 30 일 밖에 체류할 수 없다. 그리고 한국에 머무는 보험을 가입하지 못해 한국에서 병에 걸리면 중국에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다. 어머니가 아픈 상태에서 귀국해야 하는데 하나뿐인 딸임에도 불구하고 같이 가 드리지 못했던 탓에 자책도 했지만,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살고 있는데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고, 본인은 한국 모 대학교에서

중국어 강의를 하고 있으며, 남편도 회사를 다녀 많이 바쁜 상황으로 당시 같이 갈 수 없는 형편이었다고 한다. [가]는 부모를 따라 귀국하지 못했던 것을 내내 후회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는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고 한다. 연구대상자들은 외동자녀로 부모, 심지어 온 가족의 기대이자 희망으로, 자녀가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자 노부모는 자신의 노후생활을 희생하더라도 먼 이국에 와서 기꺼이 생활하며, 손자, 손녀의 양육을 도왔다. 손자, 손녀를 위해 자식이 있는 한국까지 오는 노력을 감수하는 것은 [가]의 부모뿐만이 아니다.

‘우리 가족은 다 한족이어서 부모님이 한국에 계시는 동안 재미가 없다고 하세요. 전 아침부터 회사에 가서 회식이나 야근이 없어도 저녁 8시쯤에 집에 와요. 회식, 야근을 하면 새벽에나 집에 들어오고요. 부모님이 말이 안 통하니깐 밖에 못 나가시고 그냥 집근처에서만 활동해요. 대화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한국에 오래 계시지 못해요.’([나])

‘우리 부모님은 다 퇴직하셨는데 맨날 운동하기 바빠요. 퇴직금도 잘 받고 계시고 두 분끼리만 생활하셔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부모님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문제도 생기고 노후생활에 대해서 제가 아직 생각을 많이 못했어요. 만약 부모님이 늙어서 아프시면 저는 당연히 옆에 있어야죠, 외동아들이니까.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는 거죠.’([다])

조선족이 아닌 중국인이 한국에 온 경우 언어는 큰 문제가 된다. 특히 한국에 왔는데, 자녀는 회사를 다니고 있어 집에 없는 경우가 많으니, 부모는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데, 이때 많은 불편을 겪게 된다. 대화할 사람은 없고, 사회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환경에서 오래 지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의 자식은 한국에서 유학생생활을 거쳐 오랜 기간 머물면서 자리를 잡은 상태지만, 부모는 한국에서 의사소통의 거의 불가능해 한국생활에 적응이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자식 된 도리로 부모를 모셔야 하는데, 한국생활에 적응해 본국보다 한국을 더 편하게 여기며 한국에 정착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 부모와 한국에서 함께 살기는 어려운 것이다. 부모세대가 한국에서 지내기에는 언어소통의 어려움, 비자 갱신여부, 사회복지 혜택 불가 등 수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다. 외동자녀인 이들에게 부모의 노후문제는 미래 거취에 대해 고려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1990년대 이후부터 중국에서는 도시화와 산업발전이 비약적으로 이루어졌다. 동시에 국가의 계획출산정책과 함께 ‘핵가족’이 많아졌다. 중국전통 대가족과 달리 현대 중국가정은 대부분이 부모와 자녀만 같이 사는 핵가족이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여전히 가족이 우선시되며, 특히 부자관계, 가족에 대한 자부심, 조상숭배, 가족재산의 공동소유 등은 여전히 중시되는 가치이다. 그리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다. 면접에서도 다들 부모의 노후생활을 걱정하고 있고,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여전히 효도라고 믿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이들 외동자녀들이 앞으로 계속 한국에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할 때는 부모에 대한 고려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부모님 옆에 남동생이 있으니까 저는 마음 편하게 한국에 있는 거죠. 부모님도 제가 한국에서 더 잘 될 수 있으면 한국에 남아 있으라고 하세요. 특히 아빠는 제가 외국에서 일하고 사는 것이 우리 가족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평생 한국에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우리집 장남이니까 부모님께 효도해야 해요. 부모님 노후를 생각해서 나중에 중국에서 일자리를 찾고 싶어요. 아니면 앞으로 한국, 중국에 왔다갔다 생활하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지금 일하는 대학교가 중국 캠퍼스를 만들고 제가 귀국해서 계속 이 학교에서 일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한국과 관련된 일자리가 제일 좋아요. 앞으로 한국에 정착하지 않아도 계속 한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요.’([마])

집에 형제자매가 있는 연구대상자 [마]는 부모 노후생활에 대한 걱정을 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는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자 귀국할 생각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마]자신은 내심 한국에 머물고 싶어 했다. 한국에 직장이 있고, 작년에 승진도 했다고 한다. 아내도 직장이 있고 아이도 어린이집을 다닌다. 경제적 문제가 없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도 부모의 노후를 고려하면 미래거취가 불확실하다. 반면, [마]의 부모는 자녀가 외국에 정착하는 것이 가문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며, 아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자리까지 갖게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이처럼 부모의 노후문제는 연구대상자들이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 5명 연구대상자들 중 4명이 외동자녀로, 부모를 봉양하는 문화가 이들에게는 일종의 스트레스가 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부모의 노후 생활에 대한 고려가 미래 거주지를 선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연구대상자들이 중국으로 돌아가지 않은 채 한국에 남아 있는 이유는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귀국하지 않는 이유가 단순히 경제적 조건이나 지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만은 아니다. 삶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환경과 생활의 질 역시 살아가는 데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한 요소들 중에서도 특히 환경오염이나 식품위생문제로 인한 삶의 질 저하는 모국이 중국이라 발생하는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도 있다. 귀국 후 생활환경에 대한 염려는 이들의 귀국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것이다.

VI. 결론

기본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을 바라보는 한국인들은 그들을 한국사회 구성원의 일부가 아니라 잠시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여기며, 그들이 학업을 마친 뒤 당연히 귀국할 것으로

믿는다. 하지만, 모든 유학생들이 귀국을 꿈꾸는 것은 아니며, 이들 중 일부는 다양한 목적으로 학업을 마친 뒤에도 유학한 곳에 남는 쪽을 선택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조사했던 고학력 중국인 유학생들은 그렇게 한국에 남는 길을 선택했으며, 이들은 단순한 외국인으로서 한국사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두 사회 모두에 기반을 둔 채 삶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초국가적 이주자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기 거주자’로 간주되어온 외국인 유학생들은 실제로 두 개의 국가에 걸쳐 사회적 역할과 의무, 감정적 밀착을 유지하고 있었다. 유학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왔지만, 그들이 한국에 남기로 결심했을 때,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들이 산업현장에서 한국인과 경쟁했을 때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의 고국과 관련된 분야로 결국 한국과 중국의 경계를 넘나드는 존재로 살아가게 된다. 하지만, 이들이 처음부터 이러한 미래를 예상하고 유학을 온 것은 아니었다. 그들의 입국 배경과 학교생활, 직장생활은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었지만,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취업에 이르고 한국에서 정착하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하는 삶으로 그 방향이 흘러갔던 것이다.

연구대상자들과의 면담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들의 거취결정 문제는 딱 잘라 결론내리기 어려운 문제로 보인다. 이들은 한국에 10년 이상 살아오면서 이미 적응을 한 상태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국 주류사회에 완전히 자리를 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외국인으로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서 제외되고, 진급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등 한계점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들이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대상은 현재 상태에서는 중국사회보다는 오히려 한국사회라고 볼 수도 있다. 연구대상자 [다]역시 ‘현재로서는 중국에 들어가 사는 것보다 한국에 있는 것이 더 편하다.’고 했다. 여기서 ‘편하다’는 뜻은 한국에 있는 10년 동안의 익숙한 생활 속에 그대로 사는 것이다. 물리적인 집이 있는 모국과 정신적인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양국 사이에서 이들은 계속해서 갈등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연구대상자들은 모두 80后(1980년대에 태어난 사람)사람들이라는 시대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중국의 계획출산 정책 하에 태어나고 자란 이들은 대부분이 형제자매가 없는 외동자녀들로 부모의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다. 부모를 봉양하는 것은 외동자녀의 의무이고 책임이지만, 자신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 교육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부모가 나이가 들면 모시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의 모국에 대해 어느 정도 애국심도 가지고 있는 세대이다. 80后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국가관에 대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며, 모국에 대한 충성심과 그리움이 있어 '현재 타국에서도 잘 살고 있지만 언젠가는 귀국할 것이다'(연구대상자[라])라는 생각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중국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발전에 발맞춰 나가기 위해 노력하는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고학력 직장인들은 졸업 후 한국 거주를 선택했지만, 영구 정착을 확신하지 않고 있으며, 언젠가 한국을 떠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지금 살고 있는 유입국과 모국 모두를 연결하는 더 넓은

초국적 공간에서 생활하며, 두 사회 모두를 준거로 삼아 삶을 유지하고 정체성을 구성하는 초국가적 이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 거주자'로 간주되어온 이들은 실제로 두 개의 국가에 다리를 걸쳐 사회적 역할과 의무, 감정적 밀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한중양국을 왕래하면서 삶을 영위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단행본

손해식, 『현대 여가사회의 이해』, 백산, 2003.

스티븐 카슬, 마크 J. 밀러 지음, 한국이민학회 옮김. 『이주의 시대』, 서울: 일조각, 2013.

홍석준, 전성곤, 『이주, 이동, 교류의 문화연구와 지역연구』, 건국대학교, 아시아디아 스포라연구소, 서울: 지금여기, 2010.

Robert D. Putnam,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6.

陈霓, 『改革开放以来我国自费出国留学政策分析』, 学术出版社, 2012.

학술·학위 논문

강현석, 「다문화 교육과정 설계에서 문화심리학의 적용가능성 탐색」, 『사회과 교육』, 제 47 권 2 호,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2008.

나동석·강석화,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문화적응 능력에 미치는 영향-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및 조절효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 17 권 7 호, 2010.

박영사, 『외국 인주민의 사회적 요구 및 적응』, 부산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산대학교 2012.

박은경, 「외국인 유학생의 국제이주와 지역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대구·경북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제 1 권 2 호, 대구대학교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 2011.

안영진, 최병두,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 분석」, 『KISTI 연계』,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 11 권 3 호, 2008.

최지영, 「제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에 대한 의식과 민족주의 성향 연구: 한·중 관계에서 합의를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제 51 권 1 호, 한국국제정치학회, 2011.

하정희, 「중국유학생의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 20 권 2 호, 한국심리학회, 2008.

한남제, 「중국가족제도의 변화」, 『社會科學』, 제 10 호,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1998.

중국어·영어논문

陈霓, 「改革开放以来我国自费出国留学政策分析」, 『大学(学术版)』, 2012.

鄂璠, 「留学大调查: 到国外学什么?」, 『法制咨询』, 2012年08期.

韩松青, 「论高校独生子女学生的心理特征及其教育策略」, 『绥化学院学报』, 第29卷第5期, 2009.

Robert D. Putnam, 안청시 외 옮김,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박영사, 2000, p.132.

Oberg, K. Culture shock and the problem of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Practical Anthropology* 7, 1960.

Bennett, M. J. Transition shock; Putting culture shock in perspective. [J]. *International intercultural communication annual*. Falls Church, VA; Speech Communication Association., 1989.

전자자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http://www.immigration.go.kr>

통계청 <http://kostat.go.kr>

교육과학기술부 <http://www.moe.go.kr>.

中国国务院侨务办公室 <http://www.gqb.gov.cn>

About the Author



Qian Wang, graduated from Cheongju University Korea with a major in economics and trade. In 2010, she graduated from the University of Korea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ith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and she received her Ph.D. in 2016. Dr. Qian Wang's research Interests is on new immigrant groups. Now she is an assistant professor at the International College of Suwon University.